

##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자기통제 효과

정영숙 김은경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일을 꾸준히 수행해야 하는 자기통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와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의 취학전 아동의 자기통제 효과를 살펴 보았다. 어린 아동들이 자신의 몸무게의 4%에 해당되는 가벼운 것을 편안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 수행 조건과 자신의 몸무게의 12%에 해당되는 무거운 것을 불편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 수행 조건에서 보상수혜자에 따른 아동들의 무게들기 시간을 측정 한 결과,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수행 조건에서는 자신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어린 아동들은 더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었다. 반면에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 수행 조건에서는 취학전 아동들은 자신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나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나 모두 오랫동안 무게들기를 하였다. 취학전 어린 아동들이 자신에게 득이 생길 때보다 어머니에게 득이 생길 때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더 열심히 실행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보상수혜자에 따라 취학전 아동들이 욕구만족의 지연 정도가 달랐던 선행 연구결과(정영숙과 손자경, 1995)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이나 불편을 참아내기 힘든 경우에 행위를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고통을 제어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자기통제의 원천이 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화과정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한 원천으로서 타인의 유익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당장에는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참고서 어떤 일을 꾸준히 했을 때에야 비로소 바람직한 성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예: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수험생, 고된 훈련을 참아내고서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 등등). “고진감래” 또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격언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취학전 어린 아동들도 자신이 좋아하

는 어머니를 위해 신체적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조망을 넓히고자 수행되었다.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에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행동을 실행하게끔 하는 행동의 변경이 내포되어 있다(Skinner, 1953).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방해요인이 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를 잘하기 위해 개인은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할 유인가를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방해요인을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기통제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Patterson & Mischel, 1975), 욕구만족을 지연하는 것(Mischel & Ebbesen, 1970;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열심히 노력하는 것(Eisenberger, 1992) 등 그 유형은 다양할지라도, 공통적 요소로서 방해요인을 제어하는 측면과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정영숙, 1994).

정영숙(1994)은 방해요인의 영향이 컸던 선행 연구들에서 행위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은 자기통제를 하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Karniol & Miller, 1983; Miller, Weinstein & Karniol, 1978; Mischel & Baker, 1975; Mischel & Ebbesen, 1970; Mischel, Ebbesen & Zeiss, 1972; Schack & Massari, 1973; Toner, Moore & Emmons, 1980; 정영숙, 1984). 정영숙은 이를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방해요인에 대한 제어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방해요인에 대한 제어력을 지닌 대안적 원천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정영숙(1994)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어머니의 상태, 필요, 또는 감정에 주목하여 어머니를 이롭게 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실행함으로써 아동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선물이 생기게 하거나, 아동이 표적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임을 알려주어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조작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실험들에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고되고 힘든 일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유혹에도 잘 저항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위자인 아동 자신에게 물질적 보상이 생기는 경우나 실험자로부터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보다 어머니에 대해 배려를 하도록 유도했을 때에 아동들은 고되고 힘든 일을 더 오래 지속하였다.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정영숙(1994)은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득은 고통을 제어하는 힘이 약한 반면에, 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고통을 제어하는 힘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고되고 힘든 일을 더 오래 한 결과는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이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득보다 개인에게 유인가가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대표적인 친밀관계에 속한다. 개인이 가치롭게 여기는 인간관계(예:부모-자녀 관계)에 속한 타인의 복지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유인물이 될 수 있는데(Klinger, 1977), 어머니에게 이득이 생기는 일은 개인에게 이중의 득이 될 수 있다. Aron과 그의 동료들(Aron, Aron, Tudor & Nelson, 1991)은 자신 속에 타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친밀 관계를 정의하였는데, 어머니를 인지적으로 자신 속에 포함시킨다면 어머니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이중의 득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갖기를 바라고,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정당한 것으로 느끼려고 하며, 자신이 자신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하고, 자신이 보다 가치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Baumeister, 1991).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일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요소가 많다. 반면에, 자신에게만 득이 생기는 일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것이 개인에게 이중의 득이 있고,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일을 할 때에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일은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일보다 개인에게 더 큰 유인가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선행 연구에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득이 되는 경우에

고되고 힘든 일을 더 오래 지속한 것이 방해요인의 제어력에서 차이가 난 것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고통이 다른 두 가지 과제를 조작하였다. 한 과제는 방해요인의 영향이 미약한 과제로서 신체적 고통이 덜한 과제였고, 다른 한 과제는 방해요인의 영향이 큰 과제로서 아동이 체험하는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였다. 정영숙(1994)의 제안처럼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방해요인을 제어하는 힘이 우세하다면, 방해요인의 영향이 큰 상황 하에서 행위자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아동들은 고통스러운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할 것이다. 반면에 방해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은 과제에서는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와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과제 수행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서 나타난 힘든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강력한 효과가 취학전 아동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아동 자신에게 생기는 물질적 보상을 사용한 욕구만족지연 상황이나 유혹 저항 상황에서 취학전 아동들은 초등학교 아동들에 비하여 잘 기다리지 못하며, 유혹에 잘 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ig & Kanfer, 1973; Kanfer & Zich, 1974; Miller et al., 1978; Mischel & Baker, 1975; Mischel & Ebbesen, 1970; Mischel, Ebbesen & Zeiss, 1972; Mischel & Underwood, 1974; Nisan, 1974; Nisan & Koriat, 1977; Patterson & Mischel, 1975; Toner & Smith, 1977; Yates & Mischel, 1979). 그런데 정영숙과 손자경(1995)의 연구에서 보면, 자기에게 생기는 보상을 위해서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취학전 아동들도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잘 기다렸다. 즉, 취학전 아동들은 즉각적 충동을 참고서 기다리면 자신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보다 기다리면 어머니에게 더 많은 보상을 갖다 줄 수 있는 경우에 더 잘

기다렸다. 이 결과는 아동을 위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등 아동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에게 득이 생긴다는 것이 어린 아동에게서도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의 연구가 주로 욕구만족지연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이상황이 실험적으로 조작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자기통제 상황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기다려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되는 경우보다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일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의 삶에서는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되는 일은 별로 없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일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일의 수행을 막는 방해요인(즉, 고통)이 있는 자기통제 상황에서 취학전 아동들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 효과를 살피고자 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연령이 만 5년에서 6년 7개월까지인 75명의 취학전 아동(남자 38명, 여자 37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동 1명과 무게들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동 2명의 자료를 제외한 7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조건에는 각각 18명씩의 아동들(남자 9명, 여자 9명)이 할당되었다. 72명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5년 11개월이었다.

### 실험설계

본 실험에는 모두 네 조건의 처치가 있었다. 과제의 종류로서 무거운 것을 불편한 자세로 드는 경우(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와 가벼운 것을 편안한 자세로 드는(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각 과제에서 보상의 수혜자가 아동 자신이거나 어머니인 두 조건이 있었다.

### 독립변인의 조작

**실험 과제의 설정.** 아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게들기 였는데, 아동들이 들어야 할 무게의 정도와 무게들기를 하는 자세에 따라 두 가지 과제로 나누어 졌다. 한 과제는 무거운 것을 불편한 자세로 드는 과제(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이었고 다른 한 과제는 가벼운 것을 편안한 자세로 드는 과제(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이었다.

아동이 들어야 할 무게로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정도는 예비조사를 참고로 하여 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8명(각 4명)의 아동에게 자신의 몸무게의 9%에 해당되는 무게를 들게 하거나 또는 12%에 해당되는 무게를 들게 하고 팔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만두게 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는 무게들기를 하는 것은 팔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해주었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몸무게의 9%를 들었던 아동은 약 15분 정도 무게들기를 하였고, 자신의 몸무게의 12%를 들었던 아동은 약 7분 정도 무게들기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의 9%를 들었던 아동들 중에는 힘들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아동이 2명이 있었는데 반하여, 자신의 몸무게의 12%를 들었던 아동은 모두가 팔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예비조사를 근거로 자신의 몸무게의 12%를 드는 것을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로 정하였고, 그것의 1/3에 해당되는 자신의 몸무게의 4%를 드는 것을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로 정하였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더욱 고통스러운 과제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무게의 12%에 해당되는 것

을 들되 불편한 자세로 들게 하였다. 즉 끈이 달린 바구니에 자신의 몸무게의 12%에 해당하는 무게를 담아 높은 곳에 걸치게 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한쪽 팔을 위로 들게 하는 불편한 자세로 끈을 잡아당기게 하였다.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는 끈이 달린 바구니에 자신의 몸무게의 4%에 해당하는 무게를 담아 평평한 책상에 걸치게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끈을 잡아당기게 하였다. 두 경우 모두 아동의 움직임 줄이기 위해 나머지 한 손은 책상 위에 그려진 손 그림에 맞추어 가만히 있도록 하였다.

**보상수혜자의 설정.** 보상수혜자는 아동 자신인 경우와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의 두 조건이었다.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아동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같은 것이었는데, 포장지로 싸서 보상이 무엇인지 아동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두 조건 각각에서 아동에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계속 하면 두 개의 보상을 받게 되고 중도에서 그만두면 한 개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유관을 설명하기 전에 아동에게 어머니가 아동이 아플 때에 돌보아 주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옷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알려주어 어린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보상을 갖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였다.

### 종속변인의 측정

종속 변인은 아동이 무게들기를 지속한 시간이었는데, 무게들기를 할 수 있는 최대시간으로 30분을 주었다. 아동이 무게들기를 한 시간은 초 단위로 재었으나 반올림하여 분 단위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 절차

아동이 실험실로 오면 아동의 몸무게를 재었는데, 이는 아동이 들어야 할 바구니의 무게를(몸무게의

12% 또는 4%에 해당하는 무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동이 들어야 할 바구니의 무게를 정한 후에 실험자는 아동과 rapport형성을 위해 '종치기 놀이'를 하였다. 종치기 놀이는 실험자가 밖에 나가 있다가 아동이 종을 치면 실험자가 실험실로 돌아오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 놀이는 실험자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종을 치면 실험자가 언제든 돌아온다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종치기 놀이가 끝난 후에 실험자는 아동에게 무게들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아동에게 끈이 달린 바구니(아동이 들어야 할 무게가 담긴 바구니)를 꼭 붙잡고 있어야한다는 것과 붙잡고 있는 바구니의 끈이 내려가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주었다. 아동이 무게들기 방법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주었다.

무게들기 방법을 익힌 후에 아동에게 책상 위에 놓여진 보상을 보여주면서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관성을 알려주었다. 보상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에는 아동에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하면 선물을 두 개 얻게 되지만 중도에 그만두면 선물을 한 개 받는다고 알려주었다(자기보상 취득 조건).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동에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하면 어머니에게 선물을 두 개 갖다 드릴 수 있고 중도에 그만두면 선물을 한 개 갖다 드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어머니 보상 취득 조건). 보상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무게들기와 어머니가 받을 보상간의 연계를 설명하기 전에 아동에게 어머니가 아동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을 알려주어 어머니에게 보상을 갖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였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에 아동들에게 준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OO야! 여기 무엇이 있나 보자. 여기에 선물이 있지. 이것은 선생님이 OO에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선생님은 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되거든. 선생님이 일을 다 마치고 올 때까지 바구니를 붙잡고 있으면 OO가

선물을 두 개 받는 거야. 그런데, 바구니를 들고 있다 보면 팔이 아프겠지. 바구니를 들고있다가 팔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으면 종을 흔들어라. 그러면, 선생님이 올게. 그 대신에 종을 흔들면 OO는 선물을 한 개 받는 거야."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동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이 아플 때 약도 사주시고, 간호도 해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어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배려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방법은 정영숙과 손자경(1995)이 취학전 아동들에게 어머니를 배려하도록 유도했던 방법이었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란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시문이 자기보상 취득 조건과 같았다.

실험자는 아동이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난 뒤, 아동에게 다시 질문하여 아동이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무게들기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과 과제와 보상간의 연계를 설명해준 다음 모든 조건의 아동들에게 무게들기를 하다가 팔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언제나 종을 흔들면 된다는 것과 그렇게 하면 실험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험자는 아동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아동은 세면이 칸막이로 막혀져 있는 실험실에 혼자 남아 무게들기를 하였다. 실험자는 수시로 아동의 등 뒤에 있는 창문을 통해 아동이 실험자의 지시대로 무게들기를 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자는 아동이 30분이 지나기 전에 종을 치거나 무게들기를 시작한지 30분이 지난 후에 다시 실험실로 들어가서 아동에게 두 가지 사후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아동이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무게들기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무게들기를 하는 동안 아동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데, 이것은 향후 연구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서였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끝난 후에 아동을 교실 로 돌려보냈다.

## 결 과

75명의 피험자 중에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72명 의 자료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분석에서 제 외된 3명은 실험이 끝난 후의 질문에서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계를 말하지 못했던 아동 1명과 무게들 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 동 2명이었다. 무게들기와 보상간의 연계를 말하지 못했던 아동은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이면서 신체 적 고통이 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의 아동이 었고, 무게들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 던 2명의 아동은 각각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이면서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의 아 동 1명과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이면서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조건의 아동 1명 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의 자료를 남, 여 별로 분석 해 본 결과, 성(sex)의 주효과와 성과 처치간의 어 떠한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각 조 건별 남, 여 자료를 합쳐 분석하였다. 신체적 고통 이 작은 과제와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 각각에서 보상의 수혜자에 따른 아동의 평균 무게들기 지속 시간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자신의 몸무게의 12%에 해당되는 것을 불편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에 서는 취학전 아동들은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일 경 우보다 어머니일 경우에 무게들기를 더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t(34)=2.26, p<.05$ , 양방검증). 반면에 자 신의 몸무게의 4%에 해당되는 것을 편안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에서는, 보상의 수혜 자가 자신일 경우와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 우에 차이없이 어린 아동들이 무게들기를 오랫동안

표 1  
과제별 보상수혜자에 따른 무게들기 지속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분)

| 과제유형               | 보상수혜자  |        | t     |
|--------------------|--------|--------|-------|
|                    | 자 기    | 어 머 니  |       |
| <b>신체고통이 큰 과제</b>  |        |        |       |
| 평균                 | 19.28a | 25.67  | 2.26* |
| 표준편차               | 9.72   | 6.98   |       |
|                    | (n=18) | (n=18) |       |
| <b>신체고통이 작은 과제</b> |        |        |       |
| 평균                 | 24.88  | 26.78  | .70   |
| 표준편차               | 8.81   | 7.30   |       |
|                    | (n=18) | (n=18) |       |

a 개인별 자료를 초단위까지 측정된 뒤 반올림하여 사용 하였음. 무게들기를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30 분임.  
\* $<.05$  (양방검증)

지속하였다( $t(34)=.70, ns$ ). 취학전 아동들이 자기에 게 득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제를 더 오랫동안 수행한다는 결과는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자 기통제 상황에서 고통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경 우와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모두 무게들 기를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생기는 보상이나 어머니에게 생기는 보상이 모두 행동을 실행하도록 유인하는 힘은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게들기를 오래할수록 아동들이 체험하는 신체 적 고통은 더 클 것이므로 무게들기를 오래하는 것

표 2  
조건별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한 아동의 수와 중도에 그만둔 아동의 수

| 보상수혜자      | 과제유형          |     |              |     |
|------------|---------------|-----|--------------|-----|
|            |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 |     |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 |     |
|            | 자기            | 어머니 | 자기           | 어머니 |
| 끝까지 기다린 아동 | 13            | 14  | 6            | 11  |
| 중도에 그만둔 아동 | 5             | 4   | 12           | 7   |
| 계          | 18            | 18  | 18           | 18  |

이 고통을 참아내는 자기통제의 타당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고통을 참아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과를 얻게 될 때에야 그 의미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30분) 무게들기를 한 아동들만이 두 개의 보상을 받았고, 중도에 그만 두었을 때에는 한 개의 보상만을 받았다. 따라서, 각 조건별로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무게들기를 한 아동의 수와 중도에 그만 둔 아동의 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각 조건별로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아동의 수와 중도에 그만 둔 아동의 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에서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지속한 어린 아동들의 수가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를 끝

까지 지속한 아동들의 수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이 클 때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에는 끝까지 무게들기를 한 아동이 적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에서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지속한 아동이 18명 중에서 11명(61%)이나 되었으나,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에는 18명 중에서 6명(33%)만이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계속하였다. 네 조건간에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동의 수와 중간에 그만 둔 아동들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X^2(3)=8.89, p < .05$ ).

무거운 것을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든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고통을 체험할 때에 개인이 고통을 참아낼 만한 이유를 상기할수록 고통을 더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James, 1890/1983; Jones & Gerad, 1967). 그런 점에서 무게들기를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3에서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무게들기를 한 아동들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경우에는 18명 중 13명이, 신체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18명 중 6명이 끝까지 무게들기를 하였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경우에는 18명 중 14명이, 신체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18명 중 11명이 끝까지 무게들기를 하였다.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아동들 모두가 실험자가 물었을 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들기를 하면 자기나 어머니에게 더 많은 보상이 생긴다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무게드는 일과 보상간의 유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게들기를 하는 동안 아동들이 생각했다고 보고하는 대답을 살펴보면, 보상의 수혜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 신체적 고통이 작

표 3

조건별 아동들이 무게들기를 하는 동안 생각했다고 사후에 답변한 내용

| 과제유형                           | 보 상 수 혜 자                       |               |                |               |
|--------------------------------|---------------------------------|---------------|----------------|---------------|
|                                | 자 기                             |               | 어 머 니          |               |
|                                | 신체고통이<br>작은 과제                  | 신체고통이<br>큰 과제 | 신체고통이<br>작은 과제 | 신체고통이<br>큰 과제 |
| 보상에 대한 생각                      |                                 | (2)           |                |               |
|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음                   | 9 <sup>a</sup> (3) <sup>b</sup> | 4 (8)         | 1              | 1             |
| 엄마가 기뻐하는 생각                    |                                 |               | 1              | 3             |
| 엄마에게 보상을 갖다 주는 생각              |                                 |               | 3 (2)          | 1 (3)         |
| 엄마가 고생하는 생각<br>(빨래, 동생 들볶, 청소) |                                 |               | 3              | (3)           |
| 엄마 생각                          |                                 |               | 6 (2)          | 3             |
| 엄마가 안아주는 생각                    |                                 |               |                | 2 (1)         |
| 엄마에게 칭찬받는 생각                   |                                 |               |                | 1             |
|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 (2)                             |               |                |               |
| 무게들이기가 힘들다는 생각                 |                                 | (1)           |                |               |
| 무게들이기가 쉽다는 생각                  | 2                               |               |                |               |
| 유치원에서 칭찬받는 생각                  |                                 | 2             |                |               |
| 모르겠음                           | 2                               | (1)           |                |               |
| 전 체                            | 13 (5)                          | 6 (12)        | 14 (4)         | 11 (7)        |

<sup>a</sup>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무게들기를 한 아동들의 자료임.

<sup>b</sup> 괄호 안의 수치는 실험자가 돌아오기 전에 무게들기를 그만 둔 아동들의 자료임.

은 경우든 신체적 고통이 큰 경우든 끝까지 무게들기를 했던 대부분의 아동들은 무게들기를 하는 동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각각 13명 중 9명, 6명 중 4명). 즉, 무게들기를 오래하면 자신이 보상을 많이 얻게 되는 경우에 아동들은 무게들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얻게 될 보상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는 그 양상이 다르다.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인 경우에는 끝까지 무게 들기를 한 아동들 대부분이 자신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는 달리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머니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무게 들기를 하는 동안 특



별한 생각을 하라는 실험자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때에는 어린 아동들이 어머니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를 수행하던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를 수행하던 비슷하게 어머니를 생각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4명 중 13명, 11명 중 10명). 아동들이 보고한 어머니에 관한 생각에는 어머니에게 칭찬 받거나 인정받는 것(예;안아준다)보다는 어머니에게 보상을 갖다 드리거나, 어머니가 자신들을 보살펴 주거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아동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어린 아동들에게서조차 어머니를 위하려는 쪽으로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무게 들기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아동들 자료(표 3에 있는 괄호 안의 수치)를 보면,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를 중도에 그만둔 아동은 18명 중 5명이었고,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를 중도에 그만둔 아동은 18명 중 12명이었다. 그런데, 무게 들기를 중도에 그만둔 아동들도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경우나 신체적 고통이 큰 경우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아동들이 많았다(각각 5명 중 3명, 12명 중 8명). 그러나,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에 아동들은 신체적 고통이 약한 경우나 신체적 고통이 큰 경우나 어머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의 복지에 관심을 둔 생각이 많다. 이 양상은 끝까지 무게 들기를 한 아동들의 자료와 유사하다.

## 논 의

신체적 고통을 참아내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일을 꾸준히 실행해야 하는 자기통제 상황에서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는 득으로 인한 자기

통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선행 연구(정영숙, 1994)를 출발점으로 하여, 고통을 제어하는 힘이 큰 원천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효과를 취학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입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 효과에 비하여 어머니에게 발생하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가 효과가 더 큰 것이 후자가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와 신체적 고통이 큰 두 가지 과제를 조작하였다.

자신의 몸무게의 12%에 해당되는 무거운 것을 불편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에서, 취학전 아동들은 자신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무게 들기를 더 오래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몸무게의 4%에 해당되는 가벼운 것을 편안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작은 과제에서는 취학전 아동들은 자신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나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나 차이없이 모두 비교적 오랫동안 무게 들기를 하였다. 취학전 아동들이 가벼운 것을 편안한 자세로 드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나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 모두 무게 들기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생기는 득이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에 비하여 유인력이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결과는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두 개의 보상을 받게되고 중도에 그만두면 한 개의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동안 먹고 싶은 충동이 덜 일어나게 만들면(예; 마이구미는 울퉁불퉁하고 보라색이다), 취학전 아동들은 보상의 수혜자가 어머니일 경우나 자신일 경우나 모두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와 일치한다(정영숙과 손자경, 1995).

그런데 무거운 것을 불편한 자세로 드는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에서 취학전 아동들이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보다 어머니일 경우 무게 들기를 더 오래한 결과는 아동 자신을 위해 수고하신 어머니를 위한 배려가 아동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아내

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결과는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경우 취학전 아동들이 보상의 수혜자가 자신일 경우보다 어머니 일 경우에 더 오래 기다린 결과와 일치한다(정영숙과 손자경, 1995). 취학전 아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도 자신에게 선물이 생기는 경우보다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경우에 신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일을 훨씬 더 오래 하였다(정영숙, 1994).

취학전 아동들이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한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정영숙, 1994; 정영숙과 손자경, 1995)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신에게 생기는 득으로서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이나 불편을 참아내기 어려운 경우이라도 행위자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이롭게 하려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고통을 제어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자기통제의 원천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준다. 동일한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일지라도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길 때에는 자신에게 선물이 생길 때보다 더 기분이 유쾌하다는 결과도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고통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지해주는 추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정영숙과 조용희, 1995).

본 연구에서 신체적 고통이 약한 상황하에서 보상의 수혜자에 따른 조건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실험자가 허용해 준 최대시간까지 무게 들기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없애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피험자들이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과제를 수행해야만 더 많은 보상을 주기보다는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주도록 실험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방해요인이 미약한 경우에는 과제 실행시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아동들이 실행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동을 억제하거나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 장차

발생할 바람직한 결과를 상기하는 과정은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한 기제이다(James, 1890; Jones & Gerad, 1967). 바람직한 결과가 생기는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올 때, 자발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바람직한 결과를 상기한다면 그만큼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취학전 아동들이 무게 들기를 하는 동안 생각했다고 답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생기는 득은 어머니에게 생기는 득에 비하여 자기통제를 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그 효과가 약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표 3 참조).

실험이 끝난 직후에 물어보았을 때에,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무게 들기를 하면 자신이 두 개의 선물을 받게 된다(자기보상 취득 조건)고 알고 있는 아동들 대부분이 무게 들기를 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무게 들기를 오래하면 자기가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무게 들기를 하는 동안 아동들은 자신이 받을 보상을 자발적으로 자주 상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어머니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아동들의 대부분이 무게 들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더욱이 아동들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에게 칭찬 받거나 사랑 받는 것보다는 어머니에게 보상을 갖다드리거나, 어머니가 자신을 보살펴 주거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아동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선물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 아동들은 자신이 선물을 갖다줌으로써 어머니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생길 좋은 결과를 생각한 것 같다.

어린 아동들이라 무게 들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라도 실험 후에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동들이 보고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자기통제시 아동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일을 하다가 고통스러우면

취학전 어린 아동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상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아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길 때에 어머니에게 칭찬 받을 것을 생각했다고 대답한 아동들도 소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에 포함되어 있음직한 어머니의 칭찬에 대한 기대나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구분하여 그 상대적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고통이 약한 과제인 경우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이 받게 될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무게 들기를 하였다. 아마도 수행하는 과제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고통을 거의 체감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을 보상을 굳이 상기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이 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아동들이 끝까지 무게 들기를 했던 것은 아동들이 힘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실험자의 눈에 좋게 보이거나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에게 보상이 생기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들기를 중도에 그만 둔 아동들도 있고 끝까지 무게 들기를 한 아동들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어머니를 생각하였지만 어머니를 생각한 회수나 어머니를 생각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빈도나 정도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를 생각했던 아동들 간의 자기통제력에서의 차이에는 충동성이나 고통에 대한 인내력과 같은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후속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 정도나 기질적 변인을 고려하여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상대적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취학전 어린 아동들도 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같은 원천을 통해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꾸준히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들로 하여금 충동을 억제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유혹에 저항하는 자기통제를 증진시키고자 할 때에 자신에게 생기는 득보다는 친밀한 타인을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생기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자신이 체감하는 고통이나 불편이 커지면 유기체는 자신에게 득이 유인하는 쪽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1984). 욕구만족지연 상황에서 보상의 제시 방법이 보상 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과 손자경(1995).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욕구만족 지연효과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 136-147.
- 정영숙과 조용희(1995).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의 심리적 반응의 차이: 과제중요도지각, 정서 및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14, 217-235.
- Aron, A., Aron, E.N., Tudor, M., & Nelson, G.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1-253.
- Baumeister, R.F. (1991). *Meanings of life*. New

- York: The Guilford Press.
- Eisenberger, R. (1992). Learned industriousness. *Psychological Review*, 99, 248-267.
- James, W. (1890/198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nes, E., & Gerard, H.B.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Hartig, M., & Kanfer, F. (1973). The role of verbal self-instructions i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59-267.
- Karniol, R. & Miller, D.T. (1983). Why not wait?: A cognitive model of self-imposed ter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35-942.
- Kanfer, F.H., & Zich, J. (1974). Self-control training: The effects of external control on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08-115.
- Klinger, E. (1977). *Meaning and voi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iller, D.T., Weinstein, S.M., & Karniol, R. (1978). Effects of age and self-verbalization on children's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69-570.
- Mischel, W., & Baker, N. (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54-261.
- Mischel, W., & Ebbesen, E.B. (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29-337.
- Mischel, W., Ebbesen, E.B., & Zeiss, A.R. (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s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204-218.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L.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8.
- Mischel, W., & Underwood, B. (1974). Instrumental idea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5, 1083-1088.
- Nisan, M. (1974). Imposed inhibition and delay of g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5, 1089-1092.
- Nisan, M., & Koriat, A. (1977). Children's actual choices and their conception of the wise choice in delay of gratification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8, 488-484.
- Patterson, C.J., & Mischel, W. (1975). Plans to resist dist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69-378.
- Schack, M.L., & Massari, D.J. (1973). Effects of temporal aids on delay of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68-171.
- Skinner, B.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Toner, I.J., Moore, L.P., & Emmons, B.A. (1980). The effect of being labeled on subsequent self-control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618-621.
- Toner, I.J., & Smith, R.A. (1977). Age and overt verbalization in delay maintenance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4, 123-128.
- Yates, B.T., & Mischel, W. (1979). Young children's preferred attentional strategies for delaying gratif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7, 286-300.

## **Differential Effect of Self-Control in Preschool Children as a Function of Reward Recipients**

Youngsook Chong & Eaunky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ffect of preschool children's self-control in performing task with physical pain. two tasks with different degrees of physical pain were manipulated by both weights to be holding posture. Seventy-two kindergartens were assigned into four groups. The first two groups were rewarded either for themselves or for their mothers. Half of each group were asked to hold the basket corresponding to 4% of child's body weight with less uncomfortable posture(less painful task). And the other half were asked to perform more painful task holding the basket corresponding 12% of child's body weight with more uncomfortable pos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ho were given reward for their mother performed more painful task longer than those who were given reward for themselves. Second, children who were given reward for themselves performed less painful task as long as those who were given reward for their mother. These findings showed that even younger children were able to perform the task longer for the benefits of their mother's even in the presence of powerful obstacle(e.g., physical pain). Considering th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superior effect of concern for mother on self-control be generated from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obstacle.